
2013 세계감사인대회 참가결과 보고

2013. 7

한국가스기술공사

감 사 실

I. 개 요

1. 대 회 명 : 2013 세계 감사인 대회 [2013 International Confederation]
2. 대회주최 : The IIA(미국내부감사협회)
3. 대회장소 : 미국(올랜드) Orlando World Center Marriott
4. 대회주제 : 'One World, One Profession, One Destination'
5. 대회기간 : 2013년 7월 14일(일) ~ 7월 17일(수)
 - 연수기간 : 2013년 7월 12일(금) ~ 7월 19일(금) [6박 8일]
6. 참 가 자 : 1명[감사 박성태]
 - 한국 감사협회 세계 감사인 대회 참가단
 - 강원랜드외 50개사 75명(감사 37명, 감사책임자/실무자 38명)
 - 2013 세계 감사인 대회 참여현황
 - 미국, 한국, 캐나다, 남아공, 스페인, 영국, 프랑스, 대만, 중국, 일본, 칠레 등 110개국, 2,100여명의 내부감사인 참가
7. 대회 목적
 - 감사에 대한 최신기법과 전략을 배우며, <공공분야 감사포럼>, <현 글로벌 감사 이슈>, <반부패와 윤리>, <지배구조,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IT감사>, <금융서비스 감사> 등 최신 Best Practices를 교환하고 또한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 마련
 - 전 세계 유능한 강사로부터 다양한 테마의 최신 감사 Best Practices를 통해 감사 스킬 강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전 세계 감사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진보와 인프라 구축

- 전 세계 파워풀한 전문성 개발 경험 습득 및 대회를 통한 업무 수행 강화
- 대회 전시부스 벤더들로부터 혁신적이고 최신의 감사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8. 대회 강연 프로그램

대회기간 3박 4일 동안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6개의 <공통과목>과 시간별 10개의 강좌 중 선택, 수강하는 7개의 <선택과목>, 총 76개로 구성됨

[2013 세계 감사인 대회 강연 테마]

7.13(토)	14:00~18:00	대회등록
7.14(일)	09:00~	대회등록 및 사전 컨퍼런스
	12:00~14:00	공공분야 : 2013 안내지침 업데이트 외 1개 강좌
	14:00~14:30	커피 브레이크
	14:30~17:00	패널토의 : 금융 서비스에서 현 이슈 외 4개 강좌
	18:00~20:00	환영만찬(Welcome Reception)
7.15(월)	08:00~	개회사
	~09:45	GS1 : Madeline Albright(전 미국 국무부장관)와의 대화
	09:45~10:15	커피 브레이크
	10:15~11:25	CS1 : 부정리스크 시나리오 평가 수행 외 9개 강좌
	11:25~12:40	대회 증식
	12:40~13:55	GS2 : GRC(지배구조, 리스크와 통제)에 대한 상의하달식 관점
	13:55~14:10	휴식
	14:10~15:10	CS2 : 감사 수행에 있어 최신사례 외 9개 강좌
	15:10~15:40	커피 브레이크
	15:40~16:40	CS3 : 내부감사와 감사위원회 외 9개 과정
7.16(화)	08:00~	IIA 공지 및 수상
	~09:20	GS3 : 비즈니스 우수성
	09:20~09:30	휴식
	09:30~10:40	CS4 : 리스크에 근거한 지배구조 감사 외 9개
	10:40~11:10	커피 브레이크

7.16(화)	11:10~12:20	CS5 : 재정붕괴 기간에 감사의 역할 외 9개 과정
	12:20~13:35	대회 중식
	13:35~14:35	GS4 : 통합리포팅 프레임웍
	14:35~14:50	휴식
	14:50~15:50	CS6 : IT감사의 진화 외 9개 강좌
	15:50~16:20	커피 브레이크
	16:20~17:20	CS7 : 오늘날의 내부감사 외 9개 강좌
	18:30~23:00	Gala Reception & Dinner
7.17(수)	08:30~	개회사
	~10:00	GS5 : Bernard Madoff 스캔들에서 배우는 교훈
	10:00~10:30	커피 브레이크
	10:30~	폐회사
	~12:15	GS6 : 과학기술은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II. 교육 주요내용 요약

1. <GS1> Madeline Albright와의 대화

이번 강연은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현직 시절에서 배운 교훈, 비즈니스 그리고 미국 최초 여성 국무장관으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포함한 그녀의 인생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올브라이트는 체코에서 태어나 8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부모와 생활하다 이후 미국으로 옮겨가 힘든 이민자 생활을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녀는 꾸준한 노력 끝에 미국 국무부에 입성,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 되었다. 올브라이트는 현역시절 나토연합강화, 발칸반도 정전, 세계 곳곳에 민주화를 불지피는데 노력해 왔다. 그녀는 임기시절 글로벌 시대를 감안한 리스크관리, 생물학적 리스크, 국가들 리더십을 통해 인간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시절에는 근검절약을 통한 경제부흥, 정부규제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올브라이트는 내부감사인 진실을 제언하는 사람, 조직 내에서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이라며 내부감사는 부패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올브라이트는 현 세계 정세에 대해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최근 시리아 반대파와 만남을 가졌고 정전을 통해 정부를 세우고 피난민들이 되돌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북한 김정은은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IT혁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파급효과로 민생문제, 민주주의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스노든 사태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역이며 자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하며 롤모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외에 올브라이트는 사이버어택, 현역시절 에피소드 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며 마지막으로 내부감사는 민주주의의 보안과 안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며 부패와 암적 요소를 제거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며 내부감사인의 업적에 치하 드린다고 마무리 지었다.

2. <GS2> GRC(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상의하달식 관점

패널참가자는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맡고 있는 Georgia-Pacific 부회장이자 CAE인 Paul Sobel(사회자), 감독위원회 관리 파트너 Michele Hooper, Philip Morris 인터네셔널 부회장이자 컴플라이언스를 맡고 있는 Karen Handelsman Moore, IFAC 임원, 전문 기준과 외부 관계를 맡고 있는 James Sylph, GM 감사위원이자 리스크 담당 임원인 Brian Thelen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이사회 관점에서 통합 GRC의 가치를 논했으며 GRC 목적이 정상적인 통합 없이 성취될 수 있는지, GRC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GRC가 내부감사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는 방식에 대해 토의 했다.

GRC는 많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성숙시키기 위해 채택률이 성장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사회 관점에서 통합 GRC 가치를 고려, 최근 임원진들의 사전 리스크관리가 금융위기 후 더욱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3. <GS3> 상상력을 통한 발상의 전화 : 격동의 시대에 우수한 경영을 위하여

강사는 Tom Peters, 'In Search of Excellence' 공동저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Business thinkers들 중 하나이다. 이번 강사는 업무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짧은 힘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변화하는 기술과 인구 통계에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새로운 기업리스크 프로파일의 깊은 효과를 강연했다.

Tom Peters가 이번 시간 강조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내부감사인은 파수꾼이다. 진리를 되살릴 수 있는 주역이다. 문화는 게임의 측면이며 경쟁능력이 중요하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라, 성공하려면 아래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사업은 사회의 발전과 모두가 잘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시민들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점심은 다른 부서 사람들과 하며 대화의 장을 넓혀야 한다. 내부감사인으로 의사결정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도덕적 책무가 있는 사람이다.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4. <GS4> 통합리포팅 프레임워크

강사는 Paul Druckman, 인터네셔널 통합 리포팅 위원회 CEO. 이번 강사는 최근 개봉된 프레임워크의 컨설팅 드레프트에 관하여 받은 피드백을 공유하고 내부감사의 역할을 토론한다.

리스크는 앞뒤 백미러처럼 모든 측면을 다 보아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컴플라이언스가 아닌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내부감사는 통합리포팅의 연결고리이며 내부감사 역할은 전략적 산출물을 만드는 새로운 역할이다. 통합리포팅을 위해서는 내부감사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감사부서는 이사회 경영진 등에 통합 리포팅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서이며 중요할 역할을 한다. 통합 리포팅은 기차에 비유된다. 기차가 출발했고 어디에서 타느냐 아님 못 타느냐에 달려있다. 일찍 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해야 한다. 통합리포팅 부서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통합해야 한다. 호주 사례를 보면 통합리포팅을 통해 기업이 외부 소송을 받는 경우를 피하는 사례를 우린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5. <GS5> 버니 매도프(Bernie Madoff) 폰지 사기 스캔들을 통해 배운 교훈들

강사는 Diana Henriques, 'The Wizard of Lies: Bernie Madoff and the Death of Trust'의 저자이며 1989년부터 뉴욕타임즈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유명한 폰지 사기(피라미드형 사기)에 대한 간단한 회계와 무엇이 잘못됐는지, 향후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매도프에 의해 저질러진 사기의 금액은 엄청나다. 그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금액은 170억 달러, 이 모든 투자금이 증발해 버린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이다. 오랫동안 적어도 부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수익이 실제 투자수익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의 유입에 의해 지급되었던 것이다. 향후 투자자들의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상환 요구로 매도프는 금고가 비었다는 것을 인정 하게 되었다.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매도프가 나스닥 증시의 전회장이며 오랜 세월동안 월 스트리트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딴 규정면제까지도 받았다. 또한 노련한 마케팅 역시 또 다른 요인이었다.

매도프는 거짓말의 마법사이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병리학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상황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대공황 이후 금융위기까지 단돈 10달러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그는 이후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변신한다. 이번 사건이 늦게 터진 이유 중 하나도 외부회계법인 감사 2인 또한 Bernie에게 투자한 같은 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어눌한 척 하며 상대방을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만든다.

이 사건은 향후 서브프라임 사태와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정상적인 규제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린 그를 통해 정직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I may be wrong, You may be wrong'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6. <GS6> 과학기술은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강사는 Scott Klososky, Future Point of View의 교장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는 기술 발전의 연속체에 어디에 있는지, 미래의 세대들은 성장하지 못한 과학기술을 익혔던 부모와 맞잡고 겨룰 수 있다는 것,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어떻게 조직이 적응해야 하는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적응하는 기간보다 과학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면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1980년대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 컴퓨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하는 걸 여러 번 보아 왔다. 지금은 컴퓨터 때문에 회사의 흥망이 결정될 정도로 컴퓨터의 마스터가 중요하다.

BI(Business Intelligence), 컴퓨터에는 철학이 필요하며 컴퓨터 숙달은 회사에 번영을 줌으로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Data는 강력한 자산이며 컴퓨터에 숙달됐다면 버니메이도프 폰지사건 (피라미드 사기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컴퓨터 사용에 대한 창의력 또한 중요하다. 컴퓨터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 회사의 장래에 대해 자동차의 하이 빔(안개등)에 해당한다. 우린 항상 5~10년을 내다봐야 한다.

Humalogy(Web5.0): 인간+컴퓨터 - 앞으로 인간과 컴퓨터는 하나가 된다. 진화하는 컴퓨터가 악의손, 선의 손에 같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셜 테크놀로지를 통해 수십억의 인구가 연결되며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전달된다. 이에 따라 인류는 The outboard Brain:두뇌의 역할이 점점 축소 되게 된다. 문제는 의존성이 강해지면 인간의 뇌가 Mobil Device로 대체 된다.

가까운 미래 인간은 전산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은 올바른 상황을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III. 교육참가 소감

금번 교육을 통해 내부감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내부감사란 경영층의 지시사항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정책·방침·규정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기업 내부 조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 내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자에게 전달하며, 회사의 정책·방침·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② 기업의 정책, 경영층의 지시사항이 올바르게 준수되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며, ③ 부정·오류의 발견 및 방지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직구성원의 윤리의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내부감사인은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통제활동'이 아닌 '소통'을 통해 상부조직의 문화를 하부조직에 전달하고 하부조직의 문화를 상부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의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버니 매도프(Bernie Madoff)의 폰지 사기(피라미드형 사기)를 통한

시사점으로 기업 내의 반부패·청렴의 가치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청렴은 직원 개인의 인격이자 우리 공사의 품격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생존과 경쟁력의 핵심임을 명심하고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라는 사고는 버리고 “나부터 작은 일부터”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반부패와 청렴을 실천하여 고객에게 사랑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